

영국, 「철도법안」 기반 통합 철도공기업(GBR) 중심 철도 운영체계 개편 추진

해당국가	영국	기관(기업)	영국 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철도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영국 정부는 「철도법안」을 통해 통합 철도공기업(GBR)을 중심으로 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철도 개혁을 추진

- 영국 정부는 민영화 이후 분리 운영된 철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「철도법안」을 마련하고 인프라 관리와 여객 운영을 통합하는 철도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
 - 선로 관리와 열차 운영이 17개 조직으로 분리되면서 책임 소재 불명확과 운영 비효율,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해 통합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
 - 정부는 2024년 「여객 철도 공공소유법」을 제정해 민간 운영사의 계약 종료에 맞춰 여객 철도 운영을 공공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
- 「철도법안」은 단일 공기업인 Great British Railways(GBR)를 설립해 인프라 관리와 여객 운영을 통합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
 - GBR은 선로와 역 등 철도 인프라 관리와 여객 열차 운영을 통합 수행하고 선로 접근권과 이용료 관리 기능을 포함한 철도 운영 전반을 총괄
 - 지역별 통합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철도 운영을 수행하며 선로 접근과 요금 결정은 철도·도로 규제기관(ORR)의 독립적인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

□ 영국 정부는 공공 중심의 철도 운영 전환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을 병행하며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통합 철도체계 구축을 추진

- 민간 운영사의 계약 종료 일정에 맞춰 여객 철도 운영을 단계적으로 공공 부문으로 전환하고 GBR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
 - 2025년 사우스웨스턴 철도를 시작으로 주요 운영사가 순차적으로 공공 부문으로 전환되고, 2026년에는 최대 운영사인 GTR이 공공 체계에 편입
 - 2027년까지 대부분의 여객 철도 운영을 공공 체계로 전환하고 통합 명칭과 신규 브랜드를 적용해 단일 철도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
- 철도 요금과 예매체계 개선, 장기 철도전략 수립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통합 철도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
 - 30년 만의 철도 요금 동결과 예매 수수료가 없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도입, 이용자 중심 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해 이용 편의를 향상
 - 교통부는 30년 단위 장기 철도전략(LTRS)을 수립하고 GBR을 중심으로 철도 투자와 운영 전략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

※ 출처 : GOV.UK(2026.05), Great British Railways and the public ownership programme